



암투병 끝에 올 1월에 세상을 떠난 가수 길은정씨는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이후 자신의 장기도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암환자의 장기는 기증 받지 않기 때문에 각각만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각각 기증을 결심한 후 시집에다 자신의 심경을 담은 시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두 눈을 받게 될 알 수 없는 두 사람에게 빛이 될 귀한 눈 인줄 모르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만 눈에 담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혀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은정

죄송합니다

아직은 알 수 없는 두 분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두 분께 빛이 될 귀한 눈임을
미처 알지 못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것만
눈에 담지 못했습니다

더러는 진실도 외면하고
편한 것만 취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했고
순간의 이익을 위해
질끈 눈 감았습니다

바라건대
제 눈의 새 주인이 되실 두 분,
제가 보고 담은 것은 부디 잊으시고
맑고 투명하게 세상을 보아 주십시오

두 분의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선으로
그곳에 사랑의 꽃 피어나도록

◀학창시절의 영화▶ 닥터 지바고

눈 덮인 철로를 달리던 기차에서 뿔어진 눈, 백설로 덮인 나무 숲, 영화 속의 겨울 명장면이라면 '러브스톰리'와 함께 떠오르는 닥터 지바고의 한 장면입니다. 부인을 놔두고 다른 여자와 나누는 스토리가 왜 노벨문학상받았는지 친구와 독서실에서 논쟁을 벌였던 고3시절도 있게 한 영화였습니다. 무엇보다 주제곡인 "라라의 테마"는 내용과 상관없이 지금도 가슴 설레며 눈 덮여진 들판이 그려집니다. 찰리 채플린의 딸로 큰 입에서 나오던 웃는 모습이 아름다웠던 지바고의 부인이 내게는 지금도 불쌍한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4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11월 6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나는 바보라서

최석우



나는 바보라서 사람들 말을 잘 믿습니다.
믿었다가 혼이 많이 나고 보니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더러 바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내 속내를 보이지 말아야지 했다가
내게 말하는 사람의 말이 정말 같아서 꼼꼼 숨겨놓았던 것까지 다
보여주고 나면
역시 소리도 없이 비웃으며 가버리고 나는 다시 바보가 됩니다

그대로 바보로 살아도 좋은데,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떠나간 사람들은
다시 내게 와서 내 속내를 묻지 않을 테니 괜찮은데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물을까봐 겁이 납니다.

정말 내 맘을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 주며
나와 함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이번엔 내가 바보가 아니라고 재벌 나도 똑똑해졌다고
마음에 빗장을 하나 더 질렀다가 그가 떠나갈까 두렵습니다.

그가 떠나면서 나처럼 상처를 입고
나도 바보였구나, 이번에도 바보였구나
그렇게 아파할까봐 내가 그런 상처를 줄까봐 겁이 납니다.

하나님 저는 바보가 되어도 좋으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조금 더 많은 자비를 베풀어주시려거든
제가 참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바보가 되는 편이 하나님 뜻에 맞는다면
그대로 바보로 남겨주십시오.
저의 상처받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실 테니
행복한 바보가 되겠습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인생의 참 목적은
너의 자유를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너의 주인을
발견하는 데 있다.

◀인품따라 행하기▶

쓰러짐을
부끄러워말고
일어서지 않음을
부끄러워 하라.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46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d	42 (마태 5장)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211장	
기 도 Pray		김영길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5:10-11	인 도 자
성 가 대 찬 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의를 위해 핍박 받는 자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186장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본당 뒷편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11월 예배위원◆

일자	기 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안내
6	김영길	박혜련		김교섭 정덕수
13	김종건	반혜련		
20	노은숙	방명아	이영성, 차현주	노은숙
27	박일영	백제성	정성수, 구현희	정희자

◆11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6	살롬, 의투스초청수요(9) 결식자급식봉사(12)
13	믿음의어머니기도회(15)
20	추수감사주일 세례식(20)
27	대강절 시작 선교회 총회

2005년 교회생활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1. 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2. 전도하지 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3. 처음 만난 날 처럼(교우사랑)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오후 2시

- 교우소식
<이사> *백제성, 장유진 집사(김소연 권사)
☎520-6049. 24 Monteith Cre. Remuera
*최장한. 이종후 성도 ☎482-4120 .31/120 Beach Haven Rd. Beach Haven
<등록> 서동운 성도. 김윤희 집사(4선교. 9구역). 하나. 대한
☎309-9022. 5H 135 Victoria St west. City.
- 이번주 수요일 "살롬, 의투스 초청 찬양예배" <수요일(9일) 저녁 7:30분>
*아름다운 화음과 음색을 모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롬, 의투스의 찬양을 이번주에는 우리교회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느껴 봅니다.
*아내는 만두를 튀겨 보겠다고 하더군요. 찬양 후 차 한잔 마시며 나누는 따뜻한 얘기를 위해 Finger Food를 각 가정에서 조금씩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김순자 권사 832-8100>
- 금주는 정기구역예배 주간입니다 <금요일 저녁 7:30분>
*연중계획보다 1달 더 연장하여 12월까지 구역예배를 드립니다.
- 그동안 가져오던 매월 첫째주 수요일의 "이웃교회참석수요일예배"를 이번달부터 원래대로 교회에서 "수요강해"로 갖겠습니다. 혼동을 가져다 드려 죄송합니다.
- 11월 셋째주일 "세례식"을 위한 문답
*오늘 예배 후 유아실에서 갖습니다.
*세례대상: 14세 이상. 꾸준히 교회출석 1년이상(타교회 포함)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교우께서는 참석하여 주십시오.
* "기초신앙반" 이수자, 혹은 참석교우는 세례문답이 면제됩니다.
- "결식자급식봉사" <12일(토) 오전 10시- 오후 1시30분>
*올 한해, 봉사자들의 수고로 이름 모르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배부름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도 청년부의 "인도 단기선교를 위한 선교비용모금 음식판매"는 계속됩니다

◀작한 시인들▶ 봄날

김용택

나 찾다가
텃밭에
흫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랑 손잡고
성진강 봄물을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그라.

문득 학교에서 돌아오던 뚝길에
썩들이 퍼져 있을 때 봄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비로서
나비도 보이고 논 물에 장구벌레
들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봄은
숨겨졌던 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라진 줄 알았던
것들의 출현으로 마음의 봄이
늘 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정,
수줍음, 결연적음, 부끄러움...
어느새 잃어버린 순박함입니다